

# 이범호 “명승부 보게될 것”... 박진만 “빈틈 파고들겠다”



우승 삼패인은 5차전에서 터진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2024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하게 된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 트로피를 앞에 놓고 5개의 손가락을 펼쳤다.

한국시리즈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총장 호텔에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규리그 우승팀' KIA의 이범호 감독과 함께 양현중, 김도영이 선수 대표로 참가했다.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를 제압하고 한국시리즈행을 확정 한 삼성에서는 박진만 감독과 함께 강민호, 김영웅이 자리를 해 한국시리즈 출사표를 던졌다.

1993년 한국시리즈 이후 31년 만에 성사된 맞대결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들은 '몇 차전에서 끝날 것 같다?'는 질문에 모두 5개의 손가락을 펼쳤다.

5차전 승부를 예상한 KIA와 삼성은 각각 1차전에서 '평균자책점 1위' 제임스 네일과 '다승 1위' 원태인을 앞세워 기선 제압에 나선다.

이범호 감독은 "페넌트레이스 멋있게 잘 치렀다. 선수들이 삼성이 올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잘 준비했다"며 "전통의 라이벌끼리 31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만났으니 명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17년 선수에 이어 7년 만에 사령탑으로 우승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혔다.

KIA..... 오늘 한국시리즈 1차전 .....삼성

**이범호 감독 “체력·마인드 준비 많이해”**  
**양현중 주장 “100% 상태로 1차전부터 최선”**  
**김도영 선수 “강점인 ‘발’로 우승 이끌겠다”**

2017시즌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KBO 사상 첫 통합 MVP를 차지했던 '베테랑' 양현중도 또 다른 가을 신화를 예고했다. 양현중은 "시즌 시작할 때부터 주장인 (나)성범이를 필두로 1위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체력·정신적인 면을 다시 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시간이 충분했다. 한국시리즈에서 100% 컨디션으로 1차전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한국시리즈 좋은 기억이 많다. 좋은 기억을 마음에 새기면서 임하겠다"고 선수단 분위기와 각오를 이야기했다.

올 시즌 KBO리그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MVP급 활약을 한 김도영은 이번에는 '발'로 우승을 이끌겠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정규시즌 부상 없이 열심히 달려왔다. 패기로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다"며 "연승경기에서 비공식적으로 40홈런을 쳐놨다. 마음이 편하다. 한국시리즈 들어가면

**박진만 감독 “단기전이라 시즌과 다를 것”**  
**강민호 주장 “도전자로 뜨거운 승부 총력”**  
**김영웅 선수 “동기 도영이보다 더 자신”**

강점인 발을 이용해 공략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통합 MVP에 대해서는 욕심은 크게 없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스타성이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하던 대로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현역 시절 현대와 삼성에서 6개의 우승 반지를 수확했던 박진만 감독은 '빈틈'을 노리며 사령탑 첫 우승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박진만 감독은 "KIA가 워낙 전력이 탄탄한 팀이라 시즌 내내 경기하면서 풀어나가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단기전은 다르다. 전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빈틈이 있기 때문에 파고들겠다.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기가 충만해졌다. 그 기로 KIA를 잡아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로 국제 대회 환희의 순간을 여러 차례 경험한 강민호에게는 이번이 첫 한국시리즈다.

강민호는 "꿈이었다. 한국시리즈에 오는 게 꿈이었고, 이 자리에 오는 데 21년이 걸렸다. 한국시리즈 올라왔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 후배들과 하늘에 맡기고 후회 없이 하겠다"며 "(최)형우 형이 KIA가 한국시리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해서,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좋은 분위기로 올라왔다. 도전자 입장에서 후회 없이 멋지게 싸워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플레이오프를 통해 첫 가을잔치를 경험한 김영웅도 "플레이오프 첫 경기부터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적응하고 왔다. 한국시리즈는 더 자신 있다"며 "도영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던 친구였고 올해 너무 잘해서 배울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한국시리즈에서는 내가 더 잘하겠다"고 동기 김도영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똑같은 각오로 뜨거운 승부를 예고한 두 팀, '부상'에서는 두 팀의 표정이 엇갈렸다.

KIA는 가장 큰 변수였던 네일이 부상에서 회복해 1차전 선발로 나서지만 삼성의 코너 시블드의 '가을잔치'는 끝내 무산됐다. 타선의 핵심 구자욱도 100%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박진만 감독은 "코너가 준비를 하고 재할을 했는데 합류하기 어려운 몸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다. 구자욱은 부상당했을 때보다는 통증이 많이 완화됐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100%가 아니다.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중요한 순간 대타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순철·나지완·윤석민 “KIA, 4승 1패 우승”

**KIA 출신 해설위원들 승부 예측**  
**이 “기동·장타·투수 약점 없어”**  
**나 “체력·투타 조화·우승 경험 강점”**  
**윤 “타율 1위 장점...네일, 흐름 좌우”**

타이거즈 'V11' 역사의 한 축을 장식하기도 했던 해설위원들은 입을 모아 '4승 1패'를 예상했다.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는 KIA 타이거즈는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역사 잇기에 나선다.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로 활약했던 '재간둥이' 이순철 SBS해설위원은 "약점이 없는 게 강점"이라며 "기동력, 장타력, 투수력 등 크게 떨어지는 게 없다. 1번부터 9번까지 쉽게 넘어갈 타자가 없다. 충분히 휴식도 취했다"고 KIA의 우위를 예상했다.

김도영의 '미친 활약'도 기대했다.

이 위원은 "시즌 중에 다른 선수들은 기복이 있는데 김도영이 가장 안정적으로 했다. 그게 실력이다. 어리지만 헤쳐 나가는 힘을 축적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해왔다"면서 1993년 한

국시리즈를 휘저었던 이종범을 떠올렸다.

'수비'는 키워드다.

이 위원은 "삼성이 마운드가 약점이지만 수비에서는 KIA가 약점이다. 삼성에 비해서 수비 효율이 떨어진다. 애러도 많고, 큰 경기에서 그게 나타나면 큰 단점이 된다"고 수비를 언급했다.

2017년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주인공인 나지완 해설위원도 KIA의 방망이와 수비를 각각 장점으로 꼽았다. 나 위원은 그리고 1·2차전을 주목했다.

나 위원은 "만약에 삼성이 1승 1패를 하고 라이온즈파크를 가게 되면 분위기를 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삼성은 빅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격의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젊은 선수들의 분위기가 살아나면 무시할 수 없다. 1, 2차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기세를 이야기한 나 위원은 전체적인 전력으로는 4승 1패, KIA의 우승을 예측했다.

나 위원은 "정규시즌 우승으로 체력 안배, 체력 관리를 잘했고, 전반적으로 투타 조화가 잘 맞는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승했던 선수들이 확실히 중심을 잘 잡아 줄 것이다. 1차전만 잘 넘기면 되게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다"며 "수비, 도루 저지 이런

센터라인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또 관중석 분위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위기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홈과 원정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경기를 들 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투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석민 티빙 해설위원도 4승 1패로 KIA의 우위를 예상했다.

윤 위원은 "딱히 KIA의 약점은 없는 것 같다. LG 같은 경우 홈런 수가 많이 없어서 라이온즈파크에서 이득을 못 봤는데 KIA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삼성이 팀 홈런 1위이지만 팀 타율은 KIA가 1위다"며 장타력 싸움이 예상되는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KIA의 힘을 이야기했다.

윤 위원은 네일을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선수로 꼽았다.

윤 위원은 "오래 쉬면서 컨디션은 엄청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경기 감각은 떨어질 것이다. 관중이 짜차고 그러면 오버를 할 수가 있다. 투수들이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흥분되고, 아드레날린이 나오다 보면 공격적이거나, 강하게 강하게 던지면서 제구에서 실수가 나오고 고전할 수 있다"며 "그래서 네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네일이 시즌과 다른 플레이를 하면 KIA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것이다.



이순철 해설위원

나지완 해설위원

윤석민 해설위원

1차전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고향팀에서 잠시 활약했던 이대형 SPOTV 해설위원도 '4승 1패' KIA의 우승을 점치면서, 삼성 원태인과 KIA 소크라테스를 주목했다.

이 위원은 "KIA 강타선을 막기에 삼성 선발진이 약하다. 그래도 삼성의 장타력이 좋다. 내야도 탄탄하다. KIA는 공격의 짜임새가 좋다. 전반적인 타순이나 공격력이 강하다. 선발진도 네일이 돌아오면서 양현중에 이어 4선발까지 가능한 팀이다. 투타의 밸런스가 좋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전 선발 원태인이 분위기를 타서 KIA를 묶어버리면 시리즈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원태인이 워낙 경기 운영이 좋고, 빠른 주자를 묶는 능력도 좋다"며 "KIA에서는 2번 타순이 중요할 것 같다. 소크라테스가 2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김도영 앞에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키플레이어를 뽑으면 다들 김도영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 플레이어를 해줄 수 있도록 2번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